☆ 특별기고 ☆

韓牛輸出事業의 계획

金 炯 哲
<수원축산주식회사>

차 례

1. 머 리 말
2. 韓國과 日本의 近況
가. 韓國
나. 日本
3. 韓牛輸出資質
4. 事業計劃樹立上 必要한 事項
5. 끝 말

1. 머리말

數年間 養鷄에서 손을 떼고 소의 肥育과 輸出事에만 汨沒하고 있으려니까 不知中 養鷄業界에서 이 나라 發展을 爲하여 貢獻하시는 諸賢과도 멀어진 것같고 堅實하게 躍進하고 있는 養鷄協會와도 손이 떨어지는 것만 같아서 쑥스럽기 짝이없던 차에 宋專務로 하여금 "養鷄業界에서도 소肥育事業에 觀心이 깊다"는말과 더불어 소의 肥育과 輸出에 따르는 經驗을 「양계」에 紹介해 달라기에 其間 疏遠했든 과거를 謝過하는 뜻에서 執筆하기로 하였다.

其間 1973. 6以後 우리나라 韓牛를 育成하고 肥育하여 屠殺後 고기를 만들어 所謂 커트미트한後 칠드肉으로 日本에 輸出하기로 하고 事業計劃書를 作成, 政府의 承認을 얻은後 1974. 2.1 韓日 合作 投資로 資本金이 約 6億원이 되는 株式會社를 開設하였다.

그리하여 1975年末까지 約 900頭를 對日 輸出하였고 約 2,000頭를 現在 肥育中에 있다.

前記한 바도 있듯이 當初計劃으로는 칠드肉으로 내보내기로 했지만 日本의 오일쇼크와 더불어 情勢變動으로 因하여 生牛로 내보내다보니 수출실적이 約 80萬弗밖에 안되었다. 筆者는 1974년 3월 1일을 一期로 近 40年을 보낸 公職을 떠나 이 會社의 顧問으로 就任한 셈이다.

原來 日本에서 上位級肉이라 하면 日本의 和牛中에서 所謂 松阪牛, 近江牛, 宮崎牛等을 손 꼽고 食肉店에서는 松阪牛나 但馬牛라고 表示하여야만 顧客을 많이 끌 수 있었다. 그러나 近者 鹿兒島牛가 評이 좋아져서 1975年度 全國和牛登錄協會가 實施한 産肉能力檢定에서 日本第一가는 肉質좋은 「金水九號」는 鹿兒島牛였다.

이는 生後 7個月인 것을 301日間 肥育한結果가(包論 去勢하였다) 1日 平均 0.83kg 增體이고 脂肪交착이 +3.6, 로스心面積이 43.8cm², 枝肉保留 64.8%, 枝肉單이 299.kg이나 나왔다. 그리하여 全體肉의 90%以上이 極上肉으로 格付이었다.

日本에서는 고기의 等級上, 上以上의 좋은 고기는 一般 大衆的인 家庭用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高級料理店이나 「스끼야끼」집에 팔리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全國에 이 和牛의 數는 1975年 8月 現在의 調査결과로 볼 때 約 139頭이고 全牛肉의 23.4%가 이 和牛고기이며 其中 鹿兒島牛가 23.3頭여서 全國飼育頭數의 12.5%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年間 約 39萬%의 牛肉中에 約 20萬頭分은 이 和牛肉

이 占한다.

그러나 이 和牛 또한 國內調達에는 모자란다. 1975年에도 約 2%의 飼育減少가 나타났다.

때문에 그들이 눈을 우리 韓牛에 들리게 되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畜産試驗場이 1968年頃부터 當時 畜産硏究官이 韓牛犢의 育成과 肥育試驗을 하여, 2回에 걸쳐서 日本에 고기를 보내봤고, 1970年에 嶺南大學의 李學喆博士가 韓牛肥育試驗을 하여 日本에 고기를 보내본 結果가 大端히 좋은 好評을 받았다. 本格的으로 우리 韓牛가 그들의 和牛에 比할 수 있음을 알고 第一 먼저 合作投資를 서두른것이 前記 水原의 會社設立과 生牛輸出 사업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75年 數回에 걸쳐 數百頭의 素牛(280kg未滿)도 수출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對日 韓牛肉輸出展望이 밝다하는 것은 그들이 좋아서 우리 韓牛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숫송아지를 去勢하고 짧은 時日內에 곱으로 고기를 늘려서 外貨를 벌자는 데에 意義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의 農水産部가 내다보는 國內牛肉의 動向을 살펴보고 우리 韓牛의 能力을 檢討한 後에 實地 韓牛肥育事業의 設計에서 1例를 들어 江湖의 諸賢께 參考하시기를 期待하기로 한다.

2. 韓國과 日本의 近況

가. 韓國

먼저 우리나라는 1950年代에 39萬頭이던 韓牛는 차차로 增殖이 되어서 1963年에는 136萬頭가 되었다. 이만하면 잘도 번식되는듯 하여 즐겁기도 하더니 1968年까지 사이에 年間 約 4萬頭가 줄어서 119萬頭 밖에는 保有하지 못했던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其後 1974年까지의 6年間을 더듬어 보면 年間 約 10萬頭가 다시 增殖되어서 177萬頭가 되었다. 이 韓牛外에 肉牛種에 屬하는것과 乳牛를 合하여 約 8萬頭, 도합 소가 約 185萬頭 있는 셈이 된다.

最近 一部에서는 農林統計를 의심하여 구구한 억측을 加하기도 하지만 筆者가 보기에는 統計가 틀려도 大差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大體的으로 1960年부터 1974年까지 14年間에 年間 約 20~30萬頭씩 屠殺하고서도 平均 5.5頭 增殖이 되었고 韓牛外의 소는 1975年 以後에 2萬頭정도의 增殖이 豫想되며 80年代에 가서는 乳牛만도 年間 2~3萬頭의 송犢이 나오리라고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現在保有하고 있는 숫소의 38%程度는 種牡用, 其他로 보고 나머지만 갖고도 32萬頭가 年間 屠殺需要에 充當이되는 셈이다. 따라서 바라건대 現在 實施中인 우牛의 屠殺을 보다 엄하게 다루고 송牛의 年令, 體重制限制度를 450kg線까지만 올려서 全國民으로 하여금 보다 살찌워서 잡도록 習慣化만 시키면 畜産局長 金榮鎭氏가 1974年 8月號「축산」에 (種畜改良協會發行) 寄稿하여 年間 10千頭(40,000頭分)은 外貨獲得用으로 輸出할 計劃이라고 한 이 政策을 讚揚하는 바이다.

現在 年間 單 2,000頭를 수출 못하고 있는 現實에서 보면 韓牛輸出問題가 何等 어떠한 政策上問題가 될 수는 없을 것이 舊歷年末에 이루어진 輸出禁止措處云云은 政府의 어떠한 配慮였는지는 몰라도 牛價昂勝抑制라는 心理的 효과를 노린것이었으리라고 본다.

그보다는 韓牛는 무엇이나 輸出이 되어 外貨可得이 되는 것은 아니다. 日本人이 救하고자 하는 소는 260~280kg짜리의 큰 송아지로서 (그들은 素牛 (모도우시)라고 한다) 가져가서 살 잘 찔놈을 願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550kg 程度로 肥育을 잘하여서 日本에 가져가서 잡은 고기가 前記한 바와 같이 日本和牛에 比等한 좋은 고기가 많이 나올 놈이라야 수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國家的次元에서 내다볼 때는 前記後者인 完全肥育牛나, 可能하면 여기서屠殺하고 살을 떼내서 칠드包裝한 고기를 내보내야만 할 것이다. 素牛는 한참 크고 살찌울 수 있는 國家的資源을 原資材로 내보내기는아깝다는 말이다.

나. 日本

日本의 近況에 關하여서는 前記한바도 있지만 1974年度의 食料需給에서 보면 國民1人當 年間肉類消費가 16.8kg이고 牛肉을 2.5kg을 소비했다. 그리하여 昨年 年末까지 輸入牛肉量은 7.5%을 割當發卷하였다. 따라서 5萬%은 12月末까지 들어왔고 그 나머지를 今年1~3月까지의 價格上昇調節用으로 備蓄하려 하였지만 今年正月現在 이도 또한 모자라는 推移에 놓여있다.

和牛나 肉用牛가 139萬頭飼育(1975. 8現在)이지만 前年比 2%減이고 乳用牛가 47.5萬頭여서 亦是 93% 減이고 보면 그들의 輸入內量은 늘면 늘지 줄지는 못할 것이다. 1973年代에는 年間 12萬%이나 開發輸入이라고 하여外國投資를 하거나 合作을 하여 들여 왔었으나 自國內의 產業萎縮을 防止도 하려니와 오일쇼크以後 一大變動이 일어나서 1974年 輸入을中止하였다가 도저히 지탱하기 어렵게되자 1975年에 다시 輸入을 풀기로 하고 輸入割當制를 實施하여 前記 7.5萬%을 수입하기로한것이다.

그러나 大衆的인 一般肉에 있어서는 需要調節이 되고 價格의 上昇이 어느 程度는 抑制가 되었지만 上等肉에 있어서는 기어이 kg當 2,000엔을 넘어섰다. 筆者가 展望하기에는 絕對數가 不足한 日本은 勿論 自國內 增殖計劃에도 힘을 들이겠지만 約 10萬%의 不足量은 外國에 依存치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래야만 價格安定策도 될 것이라고 본다.

더우기 今年後半期부터는 오일쇼크도 가시어不況이 回復되리라 보고 上級肉價는 堅調의 推移라고 하는 것이 메스콤의 支配的見解이고 보면 筆者같은 우둔한 展望으로도, 上級肉에 屬하는 우리나라 소고기는 그들의 군침을 넘어가게 할 것이다.

3. 韓牛輸出資質

前記한바도 있듯이 韓牛中에서 日本으로 輸出이 可能한 形態는 約 10個月을 肥育하여 520kg程度로 살찌워서 所謂 肥育牛로 내보내는 것이 한 방법이며 또 하나는 約 5個月을 育成하여 280kg內外로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다.

이 後者를 그들은 素牛라고하여 요즈음 日人들이 來往하며 求하고자 하는 大部分은 이에 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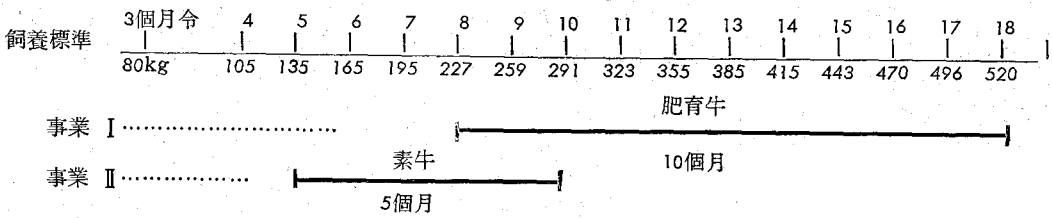
다음 表1과 表2에 韓牛肥育標準과 事業의 形態를 紹介하고 몇가지 說明을 附加하기로 한다.

即 素牛일때는 300kg未滿에서 日當增體量이 그 어느때가 가장 많고 잘자라느냐하는 것과 肥育牛도 그러하지만 去勢를 어느 時期에 하고 빨리 300kg에 가깝게 만들어서 輸出하느냐를

表 1. 韓牛의 肥育標準

月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出荷 18
體重 kg/頭		80	105	135	165	195	227	259	271	323	365	385	415	443	470	496	520
平均/頭/個月 飼料給與量 (괄호 內 1日)	濃飼	kg 63 (2.1)	81 (2.7)	99 (3.3)	117 (3.7)	135 (4.5)	154 (5.1)	173 (5.8)	193 (6.4)	206 (6.9)	218 (7.3)	231 (7.7)	238 (7.9)	244 (8.1)	249 (8.2)	249 (8.3)	
	粗飼	kg 30 (1.0)	40 (1.3)	50 (1.7)	60 (2.0)	70 (2.3)	80 (2.7)	80 (2.7)	80 (2.7)	80 (2.7)	80 (2.7)	80 (2.7)	85 (2.8)	85 (2.8)	85 (2.8)	85 (2.8)	

表 2. 素牛育成 및 肥育事業形態



考慮하여 150kg未滿인 135kg程度를 購入하고 去勢하여 育成을 잘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肥育牛는 勿論 前記 素牛를 그대로 물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事業이고 보면 每樣 資金의 回轉을 考慮치 않을 수 없고 따라서 期間을 端縮하게 마련이여서 筆者의 經驗으로 보아서는 約 10個月을 肥育期間으로 잡게 되었다. 即 200kg程度에 購入하여 去勢를 하고 肥育한다. 이보다 늦어지면 去勢에 支障이 오고 520kg이 아니라 600kg까지도 물고가도 좋지만 500kg이 넘으면 日當 增體量이 적어서 어렵기 때문에 事業으로서의 限界를 520kg으로 생각한 것이다. 勿論 個體의 能力이 優秀한놈도 간혹 있다. 따라서 그것은 事業해가며 個體를 보아서 肥育期間을 延長하기도한다. 여기서 事業을 計劃할때에 보다 具體的인 算出基礎를 參考하여야 하므로 다음 表3에 育成및 肥育期間의 飼料要求量을 紹介한다

表 3　　育成 및 肥育期間의 飼料要求

月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生體重	135	165	195	227	259	291	323	355	385	415	443	470	496	520kg
飼料別	育成飼料						肥育飼料							
濃厚飼料給與量	678						2,250 kg							
粗飼料給與量	340						825 kg							
1日/頭當增體量	0.98		1.07				1.02			0.88				
全期間通算(日當)							0.98							
濃厚飼料要求率	3.37		5.42				7.12			9.33				
全期間通算率	6.02													
生存率	100%		99%				99%			98%				
平均/頭/個月飼料給與量 (捨弧內/日平均) 濃厚	99 (3.3)	117 (3.9)	135 (4.5)	154	173	193 (5.8)	206 (6.4)	218 (6.9)	231 (7.3)	238 (7.7)	244 (7.7)	249 (7.9)	249 (8.1)	249 (8.3) (8.3) (8.3)
粗飼	50 (1.7)	60 (2.0)	70 (2.3)	80 (2.7)	80 (2.7)	80 (2.7)	80 (2.7)	80 (2.7)	80 (2.7)	85 (2.8)	85 (2.8)	85 (2.8)	85 (2.8)	85 (2.8)

即 위의 表에 依하여 各自가 目的하는 事業에 가장 比重이 큰 飼料量을 決定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만한 飼料를 給與하여 잘消化시키고 發育이 잘되며, 日本側이 要求하는 맛이좋은 고기를 肥育하려면 무엇보다 소의 購入時에 資質을 特別히 잘 골라서 導入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所謂 肥育選定이란 事業의 成敗를 占찢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4. 事業計劃樹立上 必要한 事項

素牛나 肥育牛나 間에 事業을 事業답게 計劃하려면, 勿論 未來의 展望을 深思熟考함도 重要하지만 需要와 供給이 計劃的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自己의 能力에 맞는 計劃을 樹立하려면 最少限 月間乃至는 年間計劃을 세워서 進行함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表5로써 1例를 紹介 한다.

이 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每月 50頭式輸出을 할때에는 1頭의 減消를 보아서 計劃하여야만 合理的이 되며 肥育牛 즉 10個月飼育일때는 적어도 2%의 減消를 考慮하여야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考慮하여야 할 것이 飼料의 所要量이다. 飼料의 給與量을 제시한 表3은 5個月令인 犢牛를 사다놓고 濃厚飼料를 育成用配合飼料로 678kg와 肥育用飼料로 2,250kg을 먹이면 18個月令에 520kg이 된다면 내용이다.

表 4　　素 牛 育 成 牛 保 有 計 劃

年月 / 月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51	51	50	50	50																			
2		51	51	50	50	50											2年次							
3			51	51	50	50	50																	
4				51	51	50	50	50									612頭飼育							
5					51	51	50	50	50								600頭輸出							
6						51	51	50	50	50														
7							51	51	50	50	50													
8								51	51	50	50	50												
9									51	51	50	50	50											
10										51	51	50	50	50										
11			1 年次								51	51	50	50	50									
12												51	51	50	50	50								
13			612頭飼育										51	51	50	50	50							
14			400頭輸出											51	51	50	50	50						
15															51	51	50	50	50					
16																51	51	50	50	50				
17																	51	51	50	50	50			
18																		51	51	50	50	50		
19																			51	51	50	50	50	
20																				51	51	50	50	50
21																					51	51	50	50
22																						51	51	50
23																							51	51
24																								51
計	51	102	152	20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그러면, 여기서 270~280kg짜리인 所謂 素牛를 만들어서 비싸게 輸出하고자 할 때에 어떠한놈을, 어느 月令에 어떠한 飼料를 얼마나 먹여서 效果있는 事業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各自가 나름대로 設計를 하여보아야 한다. 筆者의 經驗으로는 表2에서 言及도 했지만 5個月令부터 始作하여 10個月令일때 파는 方法이 가장 좋지않을까 한다. 肥育牛는 227kg인 8個月令짜리를 사넣어서 育成飼料를 327kg程度를 2個月間 먹이고 다음에 肥育飼料를 2,350kg을 먹여서 520kg에 到達할때 輸出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需要者인 日本側에서는 550~600kg짜리를 願하지만 이곳 肥育家立場에서 보면 이렇게만 들때 까지의 飼料效率도 考慮치 않을 수 없고 또 이때가 되면 增體도 遲遲不振함으로 資金回轉도 늦으려니와 사육가로서는 답답하기 이를데 없고 빨리 팔어버리게 된다.

素牛事業이나 肥育事業이나간에 經營面에서 考察하면 아무래도 素牛代와 飼料代가80餘%를 占하게 된다. 李鶴喆博士가 試驗한 그것도 87%나 먹였지만 筆者가 經驗한 바로도 87%가 된다. 金利를 約 5%, 人件費를 3%餘 보면 18~20%가 其他 管理 및 經費에 屬한다.

따라서 그때 그때의 情勢에 따라 다르겠지만 前記 李鶴喆博士는 32.7%의 純利益을 보았지만 企業面에서 보면 이것은 좀 많고 26%程度면 合當하겠다. 그래도 年間으로 보면 30~35%는 可得할 것으로 보아지며 이만하면 畜産業中에서 그다지 나쁜 事業은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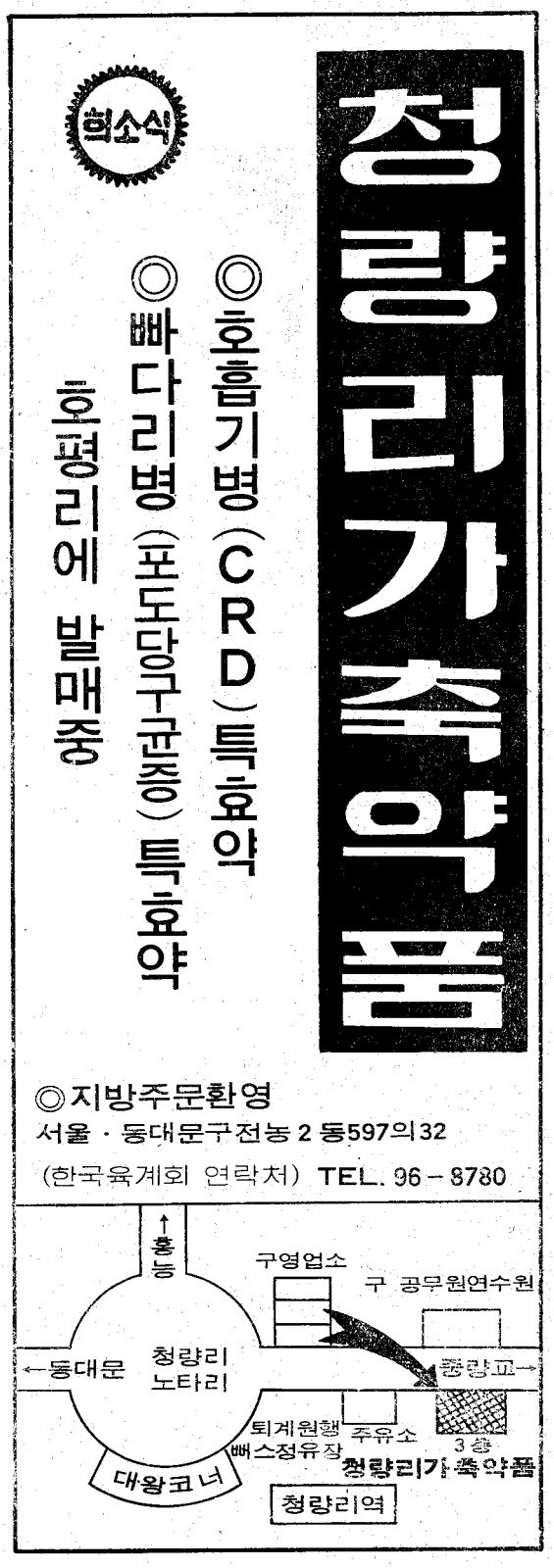
5. 끝 말

前記한바도 있지만 舊正을 앞두고 政府는 牛價昂등을 抑制한다고 輸出禁止措處를 하였

다. 近間에 와서도 當分間 풀지못하겠다는 것이 當局者의 말인樣 說往說來한다. 그러고 보면 筆者가 本稿를 보내는 意義도 없어지고 讀者들도 대견하려니와 무언가 虛無하기 짝이없다. 따라서 辯明을「끝말」에 代身해 볼까 한다.

即 當局에서는 1974年度 177萬頭의 韓牛가 140餘萬頭(未確認情報)로 줄었다고 하는 것이 輸出禁止措置의 理由인 樣流布되고 있다. 事實이 아니기를 願하는 마음에서 인지는 筆者도 모르겠으나, 年間 30餘萬頭나 줄어든 例가 없었고 아무리 社會가 腐敗하였다가 不條理一掃作業에 잠이 깨였다고 치더라도 덩치 큰 소의 過去 統計가 그 정도로 그릇되게 集計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農業센사스가 發起되고 大幅的으로 이에 從事하는 人員確保와 敎育을 마치고 配置를 실시한 것이 1973年이 었기에, 1974年의 統計는 그래도 어느때 보다는 正確했었으리라 生覺되기 때문이다.

그 例를 든다면 지난 2月號「축산」에 畜産課長이 寄稿施策의 畜産物需要를 볼 때, 75年度 牛肉이 70,292㌧이고 보면 生牛로 換算하여 約 38萬頭를 먹었다는 것이다. 即 1973年에 25萬頭, 1974年에 32萬頭, 75年에 38萬착를 먹었다고 보면 이것이 宋課長의 말대로 500弗 以上 國民所得向上結果로 오는 需要의 增加이겠다. 그러면 이 3年間 年間 約 6萬착 需要增加 인데도 不拘하고 總頭數는 40萬頭나 줄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理解하기 困難하다.

勿論 이에 대한 적절한 對策이야 行政府가 세우겠지마는 早速한 再調査가 바람직하고, 前記한바도 있듯이 年間 乳牛의 自然增加에 따르는 余積中에서 그의 半에 該當하는 數만큼 韓牛를 肥育하여 輸出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만으으로도 年間(76年) 1萬頭는 될것이고, 金額으로 보아서 1,500萬弗, 77年에는 이의 倍가 될것이다.

끝으로 의에서 기술한 社會的 生産組織과 與件整備에 힘을 써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强調하고 양계 界의 無窮한 發展을 빌며 拙稿임을 謝한다.